

일부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 경험*

한영란** · 김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은 만성 건강문제의 발생과 악화 그리고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상실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건강과 친밀감의 변화는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성(sexuality) 문제이다(Johnson, 1996).

Butler와 Lewis(1993)는 성(sexuality)이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성적 태도, 행동, 실천과 활동을 포함하고 또한 성적 사고, 경험 그리고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 존재로서의 개념이라고 설명한다(Finan, 1997). Woods(1987)는 인간의 성은 포괄적인 것으로 성의 영역을 성 기능, 성적 자아개념 그리고 성적 관계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성이란 신체적 생식기의 차이에 근거한 남녀의 특성이나 성 행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별, 그리고 성적 느낌과 정서, 성 정체감과 성 역할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Kweon, Kim, Lee, Lee와 Chung, 2002). 또한 세계 보건기구(1975)에 의하면 성 건강이란 성격, 의사소통 그리고 사람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에 있어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이며

성적 감정에 따라서 즐기고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안녕 상태를 말하며, 모든 사람은 성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생식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적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은 인간의 총체적 의미에서 호흡이나 소화와 같은 신체적 기능과 유사한 자연적 기능으로 그리고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어져 간호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Brogan, 1996).

최근 출산 자녀수의 감소로 부부만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Byeon, 1999; Lee, 1997). 부부생활에 있어서 성이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본능의 문제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노년기의 성 활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eon 등, 2002).

Oh(1997)는 노인이 노후의 삶을 보람되게 지내기 위한 기본적 필요조건으로 가족이나 배우자를 통한 애정욕구의 만족, 취미와 자기 일,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쾌적한 주택, 좋은 말상대 그리고 적당한 성적 만족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노인의 성 문제는 노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성적 욕구 충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지속 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심신의 질병, 사회 문화적

* 본 연구는 2003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개제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한영란 E-mail : hanyr@dongguk.ac.kr)

편견과 차별, 경제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성생활 지속, 이성 교제 및 노혼의 기회가 극히 제약되고 있는 것은 생활장애의 문제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노인들은 성적 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극이상의 즐거움과 따뜻함을 경험하고 개인의 역할, 기대,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노화와 동반되는 많은 상실을 만회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Chang과 Choi, 1998; Yang 등, 2001). 그러나 성은 생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노인은 늙었기 때문에 성이 소멸되고 불필요하다는 문화적 편견, 노년의 성 활동은 건강에 해로우며 장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건강유해론,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갱년기와 폐경기에 이르면 성적 능력 또는 성(sexuality) 자체를 상실하는 무성적 존재라는 폐경기 신화 등이 함께 어우러져 노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Allen, 1987; Cho, 1999; Johnson, 1996; Song, Kim 과 Oh, 1997; Yang 등, 2001).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일반 젊은이, 중년층, 노년층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게도 만연되어 있어 노인의 성은 간호의 관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1999; Oh, 1997).

간호영역에서 노인의 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성을 신체, 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성과 성생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인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기의 성 건강을 위한 이슈제기(Allen, 1987; Bogan, 1996; Finan, 1997; Peate, 1999), 노화 및 노년기 건강문제와 관련된 성 기능, 욕구 등의 변화(Avis, 2000; Bogan, 1996; Drench, 1996; Trudel, Turgeon & Pichi, 2000; Zeiss, 1997), 남녀 노인의 성 인식, 태도 및 능력 등의 차이(Johnson, 1996; Kweon 등, 2002; Lee & Lee, 1999)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인의 입장에서 성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을 연구한 논문(Oh, 1998; Kweon, 2002)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와의 접촉이 많지 않은 지방의 일부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 경험을 파악하여 근거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노인들이 성적 권리 를 실현하여 만족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돋는 성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방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 경험과정을 파악하여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Strauss와 Corbin (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일 지방의 3개 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현재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에 문제가 있는 노인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노인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노인이 15명, 여자노인이 5명이었으며, 19명은 기혼이고 그 중 3명은 재혼을 했으며, 1명은 사별했으나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3. 자료수집

대상지역의 대상자들과 3년 간 가정방문과 집단 보건 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비정기적인 접촉을 가져 대상자들과 얼마간 친숙해 있는 관계이며 면담을 위해서 보건 진료소장과 함께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장소는 마루와 거실이었으며 1인당 평균 면담시간은 약 30~40분이었다. 면담시에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개방형질문으로 이야기를 유도하여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주된 질문은 “할머니(할아버지)는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동안의 부부관계 특별히 성관계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동의 하에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즉시 전부를 필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 면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면담 후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가 자료를 보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7월 10일- 8월 17일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필사한 자료를 검토하여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추출된 내용을 비슷한 현상에 속하는 것을 모아 범주화하는 분석작업을 하였다. 축 코딩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분석된 개념과 범주들을 인과적 상황, 중심현상, 맥락, 매개요인, 행위/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로 연결 지으면서 파라다임을 형성하였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분석을 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범주들을 정련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많은 범주들 가운데서 연구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찾아낸 후 이론적 틀을 발전시켰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근거이론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공동연구자 2인이 매 면담에 따른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 면담시 활용하였고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의 성생활은 어떠한지 노인의 내부적 관점에서 그 경험을 이해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거이론의 파라다임에 따른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개념은 64개였으며 이는 2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Table 1).

1) 인과적 조건

'긍정적 노화수용'과 '여성 노인의 좋지 않은 건강'이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위축된 성생활'을 일으키는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조건으로 나타났다. 상위범주인 '긍정적 노화수용'에는 노화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의 쇠퇴인 '노화증상'과 '노화수용'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늙으면 다 아프기 마련이지... 나이 줄으면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 곳이 많아, 몸이 시원치 않지.

우리 때는 생기는 대로 아기들 냉아서 더 고생했지. 짖안일 해야지 농사일 해야지. 아파서 누울 틈도 없었지...여자들은 다 그래. 그래서 더 아파..

2) 맥락

맥락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조건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위축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결혼유형'과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나타났다.

사별 후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1년 전에 재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지... (남자 노인)

부부관계는 자녀출산이 끝나고 나서 편안해 못 느껴.... 중요한 게 아니지. 몸이 편한 게 최고지. 귀찮게 무슨 부부생활이야... 할아버지와 각 냉 쓰고 있고 ...

3) 현상

농촌 노인의 성생활에서 '남자 노인의 지속되는 성 기능', '성 관계의 결립들', '성 관계의 횟수감소' 그리고 '새 배우자로 활성화된 성관계'가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범주들은 '위축된 성생활'로 명명될 수 있다.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자주 성대를 하면 오래가지.. 할머니가 싫다고 하니 다른 사람과 만나 성대한 적도 있지.. 젊었을 때는 땀 땀 가서도 뛰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과 같지는 않아... 여자들은 언제부턴가 싫어하고 귀찮아해서 내가 찾고 지내지... 나는 아직 친이 있는데 할머니 생각하고 찾는 거지.. (남자 노인 등)

몸 편한 게 최고지.. 여기저기 아픈데 나는 관심 없어.. 여자는 양기가 먼저 떠어지거든, 어쩌다 한 냉에 있어도 별 느낌 없고.. 남편도 관심 없다보니 아예 생각도 안 하지... (여자노인 등)..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몸도 피곤하고 아프니.. 아예 하지 않지.. 허리가 아픈데 뭐... (남녀 공통)

40대 몇부터 감소하더니 60대 몇부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지... 능력은 사뭇마다 다르지. 지금 70세가 될때 넘었어도 가능하거든... (남자 노인 등)

전 척 아플 때는 전혀 되지 않을 않았는데 사별 후 재혼하고 나서는 지금 주 1회가 가능해

〈Table 1〉 Analysis of Concepts and Categories based on grounded theory Paradigm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파라다임
빠근하고 아픔, 시원찮은 몸, 어두운 귀, 침침한 눈, 틀니사용, 아픈 잇몸, 고장 난 발동기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만성통증.	노화 증상	긍정적	
아프지만 건강한 것으로 생각.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	노화 수용	노화수용	인과적 조건
피임무지로 인한 과다출산 여성노인의 가사·농사일의 이중부담 먼저 쇠해진 여자의 양기 늙어도 지속되는 남자의 성 관계, 계속 상대해서 유지되는 남자의 성 능력	여성노인의 좋지 않은 건강	여성노인의 좋지 않은 건강	
쇠해진 양기, 성욕저하와 소설, 한방에 있어도 별 느낌 없음. 쉽고 귀찮은 부부관계, 몸 편한 게 최고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아픔 괴롭힘, 힘이 떨림	남녀 노인의 성 기능 차이	남자노인의 지속되는 성기능	
아내의 성관계 싫어함. 아내의 중단요구 아내를 위해 참음, 아내의 성관계 거부. 남편의 무관심으로 성관계 없음.	성적홍미 감소	성관계의 걸림돌	중심 현상
40대 말부터 감소되어 60대 말 거의 없어진 성 관계. 주기적인 성관계가 지속되는 일부 노인 재혼 후 원활해진 성관계, 좋아진 식욕. 재혼 후 더 잘되는 일. 재혼 후에 가능해진 성관계. 재혼 후 주 1회 가능한 70대노인	통증 감소	성 관계횟수 감소	성 관계횟수 감소
초혼, 재혼 자녀출산이후 필요 없는 성관계. 부부각방 사용, 남편 마음대로의 성생활.	재혼 후 활성화된 성관계	새 배우자로 활성화된 성관계	
분위기 변신을 위한 비용 외도 시 필요한 돈 다양한 질병과 상태 용기 없어 표현하지 못한 성생활불만	결혼유형 성 관계에 대한 보수적 태도	결혼유형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	맥락
내 방으로 오지 않는 남편. 한방에 자도 관계하지 않음	경제적 여유	경제력	
악물복용, 부부간 분위기변신, 성 기능촉진을 위한 민간요법시행 외도	질병 표현하지 못한 성 욕구	질병력 성관계에 대한 대화부재	매개요인
성관계에 문제없는 70대, 문제없는 빨기.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성 관계	성적 무관심	관심부재	
경제적으로 아내배려, 다정한 대화, 함께 하는 여행, 마음의 화합. 성관계 없어도 좋음, 가사 일에 대한 배려	부부 성관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타인과의 성관계 추구	다른 다양한 배려	행위/ 상호작용전략
자손에 대한 만족, 자녀들과 교류	지속적인 성관계	원만한 성관계유지	
... 식욕도 늙고 악도 잘되고 (재혼한 75세 남자노인)	배우자에 대한 다양한 배려	다른 애정표현	결과
4) 매개요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한 자손을 통한 대리만족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질병력' 그리고 '성 관계에 대한 대화부재'가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할머니와 기본 내려고 여행도 가끔 가지.. 딸 여자 보려고 해도 돈이 펑유하잖아... 돈이 펑유한 거지...

매개요인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구조적인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젊어서는 아이들려 한 방을 쓰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아프고 나서부터는 전혀 하지 않지.. 한 10년 넘었어.... 50대부터 할아버지가 심장이 나쁘고 기관지가 나빠 여자만 계를 금하라고 하네.. 그때 그 이후는 못했지..

젊어서 생각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 표현을 못했지... 낯사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어... (할머니)

5) 행위/ 상호작용전략

이것은 일련의 특수한 조건 하에서 현상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작용/반작용을 가르친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부재', '적극적 노력'이 위축된 성생활을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력'의 상위범주에는 '부부 성관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타인과의 성관계 추구'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할아버지가 내 방으로 오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한 방에서 자도 그냥 자는 거야..

외지의 악방에서 비아그라도 사 먹어보고 성 흥분제 주사도 맞아봤지... 분위기를 바꾸면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여행도 가보고.. 나름대로 노력해어... 한 달에 1-2회 정도는 외도 만남을 가기도 했어.. 지금은 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해...

요구르트와 생 속으로 가루 매일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해서 연신히 먹고 친내고 있지...

6) 결과

'위축된 성생활'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상호작용전략이 취해져서 나타나는 결과에는 '원만한 성관계유지', '다른 애정표현' 그리고 '자손을 통한 대리만족'이 포함되었다.

중매로 결혼 해 첫 날밤 얼굴도 못 봤는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 남자 같이 부부생활 하는 거지.. 볕스러운 것도 없고... 한 달에 서너번은 하고 있지...

부부간에 서로 대정하게 물고 함께 놓고 마음이 학합되면 되는 거지.. 할머니에게 용돈 넉넉히 주고 가끔씩 집안일 도와주고 우애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부부관계가 지금 사 중요치 않지..

자식들 재미로 살지.. 자식들과 자주 암부전화하고 자식 잘되면 즐겁고.. 전에 같이 살 때는 좋더구먼 손주들 고육 땐에 도시로 가 지금은 자주 못 보지..

2.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 경험의 과정분석

농촌 지역 노인들의 성생활 경험은 노화에 따른 남녀의 성 기능 및 욕구의 차이 그리고 성 관계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배우자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남편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 성생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노인의 성생활의 핵심범주는 '남편에 따라 변화되는 성생활'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은 3단계로 남녀차이 및 장애물 인식, 배우자의 태도관찰, 남편 주도의 성생활 과정을 거친다(figure 1).

1) 남녀차이 및 장애물 인식

농촌 지역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녀가 모두 체력이 저하되어 힘이 부족하고 성적 흥미가 감소되며 만성 통증 등의 성관계 장애물이 나타나 점차 성교 횟수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성관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은 과다출산과 가사노동의 이중 노동으로 남자보다 더 빨리 건강이 악화되고 양기가 떨어져 성적 흥미가 감소되는 반면 남자는 개별 차가 있긴 하지만 60%에서 성 기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 노인은 대부분 부부 성관계를 출산과 연계하여 생각하여 경도가 끊기면 귀찮은 일로 여기고 있었으나 남자 노인은 상대할수록 성 기능이 지속되며 80세에도 자녀를 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은 참 젊었으면 생각하나 항상 늙는 게 안타깝지.. 늙어서 악 아픈 데가 없어. 몸이 시원치 않으니 차도 떨리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가능하는데 통증이 있어서니 자주 피하게 되지.

한 주에도 여러 번하다 60년에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할까? 언제가 부터 하마 멀리 가버렸어,,

할머니 몸이 영 시원치 않으니.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옛날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남자랑 여자랑 틀린 게지. 사별하고 나면 남자는 재혼하는 것이 좋고 여자는 필요 없다.

경도가 끊기면 몸 편한 게 척고지.. 남편이 다른 여자 봐서 아기 낳아오면 어쩌겠노 받아들여야지..

2) 배우자의 태도관찰

이 단계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태도를 관찰하며 즉각적 반응을 하는 단계이다. 사별 후 재혼한 사례는 더욱 할머니를 의식하여 배려한다.

각 방을 쓰는데 할아버지가 내 방으로 오지 않으니까 생각이 있어도 말낼 수가 없지.

할머니가 언제부터 귀찮다고 하니까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됐지. 내 능력은 문제 없는데 할머니를 배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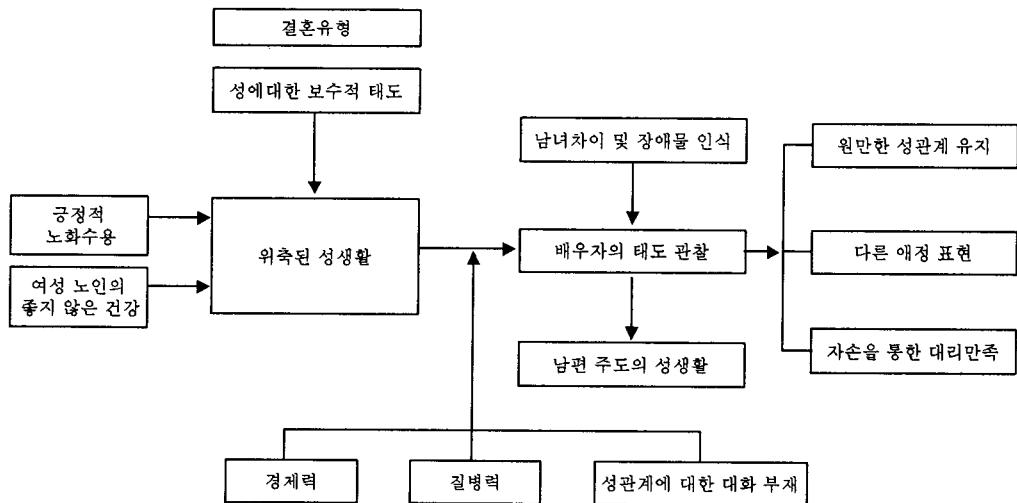


Figure 1. Changeable sexual life at husband's mercy

것이지.... 할매가 싫다하니 땀 여자 보게되지....

처음에는 꺼렸는데 재혼을 하니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식욕도 좋아지고 일도 잘되고 늙은 나를 보고 온 할머니가 안됐기도 하고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어. 전 처악는 안됐는데 지금은 잘 돼.. 지금은 좋아비 보면 재혼하라고 권유하지..

3) 남편 주도의 성생활

이 단계는 할아버지가 배우자의 태도를 관찰하고 자신의 성 관계에 대한 태도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성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할머니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단계이다. 성적 흥미도 없고 성생활에 중요성을 느끼는 못하는 할아버지는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할머니에게 용돈주기, 가사 일 돋기, 따뜻한 대화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거나 자녀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다. 한편 성생활에 관심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할아버지는 분위기 변신을 위한 여행시도, 약물복용, 운동, 건강식품 이용, 외도 등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집안 일을 많이 돋는 편이지. 여행도 잘 못 가니. 나도 그냥 집에 주로 있지.. 함께 있고 다정하게 지내면 성 관계 못해도 부부 금슬이 좋아.

젊어서부터 할아버지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할 수

없이 나도 관심이 없어졌지.... 전부터 할아버지가 관심

이 없는 거야.. 별수 있나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지.. 할아버지 마음대로지 뭐..

자식들 크는 거 보고 서로 연락하고 자식 찾되는 것 보는 게 낙이지..

할머니와 가끔씩 익식하고 여행하면 좋아하지. 할머니를 위해 비아그라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이했어.---- 할머니가 싫어하니 관광 차 뭐지 가서 다른 여자 보기도 하고,, 이곳은 도시처럼 그렇게 땀 여자 볼일이 훈치 않아.. 뭐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재혼하고서는 몸에 좋다는 것은 음식이고 운동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 할매가 몸에 좋다는 것을 해주니 열심히 먹고 있고 건포마초나 좋다고 해서 매일 하고 있지....

나는 할매가 14년 전에 먼저 가고 있으니 다른 여자들을 가끔씩 만나고 있어.... 월 1-2회 정도 관광차 나가기도 하고..

IV. 논의

본 연구결과 15명의 남자 노인 중 60대 중반의 노인 2명, 70대 중반의 노인 3명, 80대 노인 1명 등 6명을 제외한 60-70대 노인 9명의 노인이 성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60%의 남자노인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71세 된 한 노인은 지금도 주 1회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74세 노인 역시 자신의 성 기능은 아직 왕

성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연구에 참여했던 사별한 한 남자노인과 재혼 한 두 남자 노인은 다른 부부들에 비해 성생활이 지속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Brecher(1984)의 '사랑, 성, 노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성이 노화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의 노인들이 성적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강 문제를 가졌다하더라도 성적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1996에 인용함). Johnson(1996)이 지역사회의 노인센터를 이용하는 164명의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령과 성적 흥미, 성적 활동에의 참여 등이 유의한 수준에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에 따라 성생활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노인의 68%가 성적 활동에의 참여 감소, 33%가 성적 만족의 감소를 호소한 반면, 전체 노인의 약 15%가 성적 흥미나 성적 활동에의 참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별로 보면 여성노인의 32%, 남성 노인의 42%가 성적 만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노화에 따라 성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Lee(1990)가 서울시 거주 60-80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성적 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자의 89.4%가 정도의 차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성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80세 이상 노인 6명 중 4명이 아직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성노인의 30.9%가 성적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Ha와 Kim(1986)이 연금수혜자인 정년퇴직자 4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74.6%가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70세까지는 노인의 50% 이상이 월 2회 이상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나이 들에 따라 성관계의 횟수가 감소하지만, 60%의 노인이 아직 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Master와 Johnson(1981)은 부부관계가 좋고 배우자가 건강하다면 노인기에도 성이 지속된다 고 하여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Johnson, 1996에 인용함).

남녀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nus & Janus(1993)의 '성 행동에 관한 Janus의 보고서'에 따르면 51세 이상의 노인 90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녀모두에서 오르가즘에의 도달과 자위행위 등을

보고하여 성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고,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좀더 성적(sexual)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Starr & Weiner(1981)의 '노년기의 성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좀더 성적(sexual)인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1996에 인용함). Lee(1990)가 서울시 거주 60-80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성적 능력을 조사한 결과 성 행위빈도 역시 규칙적인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에서 80세 이상의 고령까지 성행위를 지속하고 있었고,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남자노인은 8.1%인데 비해 여성 노인은 25.4%가 전혀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여성의 성 활동 감퇴율이 높게 나타났다. kweon 등(2002)이 60세 이상의 남자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2.2%가 월 평균 3회로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24.8%는 배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유 배우자 중 18.3%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 최근 한 달간 이내에 잠자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노인에게 있어 성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은 생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적 사고가 노인에게 있어 성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편견과 태도를 이루는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여자 노인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노인은 60대 이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본 결과는 성생활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Oh(1998)의 연구에서도 늙고 자녀를 출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생활이 필요 없다는 성생활의 '중요성 없음'의 결과가 나와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에 비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며 성적 관심이나 행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여성 노인의 성적 활동이 남성 노인에 비해 적음이 확인되었다(Chang과 Choi, 1998; Song, Kim과 Oh, 1997; White, 1982).

성생활은 여성과 남성 두 성이 함께 만드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남성 노인은 노화가 진행되어도 성 기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단지 배우자인 여성 노인이 성 관계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므로 배우자를 배려하여 아주 가끔 성생활을 하거나,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 또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여성 노인은 현재 나이가 들어 성관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자신은 성적 욕구가 있어도 배우자가 안방으로 건너오지

않거나 성적 관심이 없어 성생활이 원만치 못했고 이로 인해 불만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자 노인은 자신의 성 욕구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비해, 여자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성 욕구와 관계없이 남편의 성 욕구에 따라 성생활이 좌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ric(1987)이 133명을 대상으로 성 관계 중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는 평균 68세, 여자는 60세로 나타나 여자가 더 빨리 성관계를 중단했으며, 남자는 자신의 원인으로 중단한 비율이 58%인데 반하여 여자는 배우자 사랑 48%, 배우자 질병 23%, 배우자 불능 14% 등 86%가 배우자 탓으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Cho, 1999에 인용함). Avis(2000)의 연구에서도 남자노인은 노화, 나쁜 건강상태, 투약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성 활동이 감소되는데 비해 여성은 건강이 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성 활동감소에 더 주된 중단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성생활 지속과 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영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Oh(1998)의 연구를 보면 남성 노인의 성생활 장애의 하나로 여성 노인의 성적 관심감소가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입장에서는 남성 노인의 관심감소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현 성생활에서 여성 노인의 성적 관심감소는 중요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성적 관심이 감소하는 원인은 동기감소, 해부학적 불편감, 생리학적 반응저하, 행동제한 등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므로(Bae & Lee, 1996) 원인에 따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또 다른 성 관계의 장애물로 성적 홍미의 감소, 만성 통증, 체력감소, 질병 등 노화에 따른 자연적 성적 변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성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Oh(1998)의 연구에서도 성생활 변화 혹은 장애를 초래한 신체적 장애요인으로 체력의 감소, 만성질환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노인은 호르몬 등의 변화로 성 욕구가 감소되고 생식기관의 기능이 감퇴되는 등 노화에 따라 성 기능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노화 자체에 의한 변화보다는 당뇨, 고혈압, 고지질 등과 같은 혈관질환의 빈도가 높아지고 항 고혈압제와 약물복용이 늘어나면서 성 기능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Chang, & Choi, 1998; Yang 등, 2001). Russell(1998)은 생식기 관련질환과 혈관 및 신경적 손상과 같은 성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척수손상, 중풍, 파킨슨씨병, 당뇨병이 성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질병의 신체적 반응이 외에도 심리적 효과로 인해 성생활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약물치료나 유방절제술과 같은 치료적 수술에 의해서도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필요하며, 일단 장애발생 시에는 성생활을 마감하기보다는 적응하는 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성생활의 장애 요인을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함께 있어 나이가 듬에 따라 남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변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및 성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사정하여 적절한 간호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성생활에서 먼저 성적 관심과 활동의 감퇴를 보이는 여자 노인의 보수적인 성적 태도와 장애요인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중요하다.

건강한 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침을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 측면에 있어서는 노부부 모두 만성질병과 사망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고 또한 성적 반응이 감소될 수 있으나, 만약 관심이 있다면 배우자와 성적 활동과 친밀감을 지속할 수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80세 이상에서도 만족스런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기에는 발기와 질 분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유희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Finan, 1997).

한편 본 연구에서 사별한 자 14년이 지난 60대 중반의 남자노인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성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혼자 된 70대 중반 노인이 재혼 후에 더욱 생활 전체가 건강해지고 성 기능이 활성화됨을 볼 때 성생활이 노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자된 노인이 이성교제와 재혼 또는 자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성적 욕구의 해소와 성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돋는 상담과 교육 등 중재가 필요하다(Bae와 Lee, 1996; Cho, 1999). Porcino(1983)는 규칙적인 성 활동의 지속이 성 기능을 활성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성 파트너가 없어 금욕을 해야 할 경우 성 능력을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보다 자위행위로써 성 기관의 생명을 보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마스터스와 존슨이 198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60-79세의 약 50%가량, 70대에서는 약 29.5%가 자위행위로 성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자위행위가 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Cho, 1999에 인용). 또한 Lee(1990)가 서울시 거주 60-80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재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자 노인 61.6%, 여자 노인 22.7%가 재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 38.5%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15.4%가 몸 시중 회망, 7.7%가 성적 만족을 위해서이고 여자 노인은 15.5%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2.4%가 성적 만족을 위해 재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재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성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구속을 느끼고, 빠르게 성적 욕구가 고갈되며, 남녀의 역할이 분리된 것 등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기의 성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사별과 별거 등은 성생활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초로기에 혼자되어 장시간을 혼자 독거 노인으로 지내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Falk와 Falk, 1980; Yang 등, 2001). 노인에게 있어 재혼은 단지 성욕의 만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신감을 주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와 실제적인 만족을 주는 결합이므로(Cho, 1999; Chang & Choi, 1998; Lee, 1990) 당사자가 원하는 재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생활을 연구한 Oh(1998)의 결과에서 성생활이 갖는 중요성이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그 중 노년기에 성생활은 큰 의미가 없고 대신 할머니와의 따뜻한 정, 자손들을 보는 재미가 더 의미가 있다는 '의미의 감소(대체)' 범주는 본 연구결과의 '다른 애정표현'과 '자손을 통한 대리민족'과 같은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화의 신체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성을 초월한 성숙된 삶을 더욱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례도 많으므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무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성숙된 노년의 한 대안일 수 있다. Cho(1999)에 의하면 여러 논문 결과 남자 노인의 50%이하, 여성 노인의 65%이상이 60대가 지나면 성생활 없이 지내는 무성적 존재로 지냄을 볼 때 성 기능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Andrews(1988) 역시 성관계 이외에도 성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 즉 키스, 안기, 함께 식사하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파업을 서로 돋기, 생활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함께 하기 등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노인기를 잘 지낼 것을 권장하였다 (Brogan, 1996에 인용함).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전인적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성(sexuality)을 제외한 접근은 모순이다. 따라서 건강 관리자로서 건강사정을 할 때부터 성에 대한 사정을 포함한 전체적 사정을 해야 한다. 사정 시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의 질, 영적·종교적 신념, 건강문제와 치료, 투약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긴급한 건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신뢰감을 형성한 후 적절한 시점에 성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를 해야 한다(Finan, 1997; Peate, 1999). Boyer와 Boyer(1982)는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9주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게임방식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노인, 가족 그리고 노인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결과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Allen, 1987에 인용).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의 성생활은 어떠한지 노인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 경험과정을 파악하여 근거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여 성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 지방의 3개 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가에 동의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거자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개념은 64개였으며 이는 2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로 통합되었고, 농촌지역 노인의 성생활의 핵심범주는 '남편에 따라 변화되는 성생활'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은 남녀차이 및 장애물 인식, 배우자의 태도관찰, 남편 주도의 성생활 과정의 3단계를 거친다

연구결과 성생활은 나이가 듦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축되지만 노인의 삶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남녀에 따라 성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성생활에서 여성의 의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남성의 능력과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 건강사정 시 성적 영역에 대한 사정지침을 준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

재 측면에서는 노인이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며, 성적 홍미감소, 통증, 체력저하, 질병, 연령에 따른 횟수 감소 등 장애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자 중심의 교육과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남녀에 있어 성 기능 및 욕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간호사정과 중재가 필요하며 노인기를 더 오래 혼자 보내야 하는 여성노인의 나쁜 건강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여성 노인의 수가 적었고 여성노인이 성생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극히 표현을 자제하여 여성 측면의 진술이 적다는 것과 성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성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2. 남녀 노인의 성생활에서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독거 노인과 재혼한 사람들의 성생활에 관한 심층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4.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다양한 수준에서 준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llen, M. E. (1987). A holistic view of sexuality and the aged, *Holistic nurs pract.*, (94), 76-83.
- Andrew, J. (1988). *Sexuality and the older person*. In Wright S(Ed), *Nursing the Older patients*. London, Harper and Row.
- Avis, N. E. (2000). sexual function and aging in men and woman : community and population-based studies, *J GENDER SPECIFIC MED*, 3(2), 37-41
- Bae, K. Y., & Lee, Y. J. (1996). *Geriatric medicine*. Korea Medical Book Publisher Co., Korea
- Byeon, H. S. (1999). *The elderly and the society in korea: couple relationship in elderly*. Women's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y, The Center for Culture and Information Studies.
- Brogan, M. (1996). The sexual needs of elderly people : addressing the issue, *Nurs Stand*, 10(24), March, 6, 42-45.
- Chang, I. H., & Choi, S. J. (1998). *Elderly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ho, S. S. (1999). *The elderly and the society in korea: old man and sexuality*, Women's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y, The Center for Culture and Information Studies.
- Drench, M. E. (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IL NURS*, 21(3), 118-23.
- Falk, G. & Falk, U. (1980). Sexuality and the aged, *Nurs Outlook*, 28(1), 51-55.
- Finan, S. L. (1997). Promoting healthy sexuality : guidelines for early through older adulthood, *Nurse Pract*. 22(12), 54-60
- Johnson, B. K. (1996). Older adults and sexuality :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 Gerontol Nurs*, February, 6-15.
- Kweon, M. S.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weon, S. S., Kim, M. H., Lee W. Y., Lee, I. S., & Chung, Y. K., (2002). A correlational study on perceived sex life and depression in old man, *J Korea Comm Nurs*, 13(4), 639-647.
- Lee, Y. S. (1990). *A collection of treatises in elderly problem*, KYOHAKSA.
- Lee, S. S. (1997). A study on sex-role attitude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elderly persons, *J of KGS*, 17(2), 70-80.
- Lee, S. S., & Lee, K. J. (1999). A Study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role Attitude for the Elderly Man,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2), 1-3.
- Oh, S. G. (1997). Welfare's philosophical approach of sexual rights in elderly, SilverNet, *An electronic Journal of the*

HRIC, 2(6), 2-8.

- Oh, J. J. (1998). A Study on sexual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aged in community, *J Korea Community Health Nur Academic Society*, 12(2), 236-251.
- Park, E. K. (1999). Vigorous old age, healthy old adults: culture of sex in korea,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47-61
- Peate, I. (1999). focus on sexual health; the need to address sexuality in older people, *BR J COMMUNITY NURS*, 4(4), 174-80.
- Russell, P. (1998). Sexuality in the lives of older people, *Nurs Stand*, 13(8), November 11-17.
- Song, M. S., Kim, S. M. & Oh, J. J. (1997). *The research and future prospect of care in the older adul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CA : SAGE.
- Trudell, G., Turgeon, L. & Pichi, L. (2000). Marital and sexual aspects of old age, *SEX RELATIONSHIP THER*, 15(4), 381-406.
- White, C. (1982). Sexual interest, attitudes, knowledge and sexual history in relation to sexual behavior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Arch Sex Behav*, 11(1), 11-21.
- Woods, N. F.(1987). Toward a holistic perspectives of sexuality : alteration in sexual health and nursing diagnosis, *Holistic nurs pract*, 1(4), 1-11.
- Yang, G. H. et al (2001). *Care of the older adults: the presents and future*, SooMoonSa.
- Zeiss, A. M. (1997). Sexuality and aging : normal changes and clinical problems, *TOP GERIATR REHABIL*, 12(4), 11-27.

- Abstract -

Sexual Life of Older Adults in Rural Community

*Han, Young Ran** · *Kim, Young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elders in rural communities maintain their sexual lif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20 participants who were 65 years old or older, and either were married couples or were continuing the sexual relationship though widow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Strauss and Corbin's (199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experiences of the elderly's sexual life was identified with "changeable sexual life at husband's mercy". This process could be divided into 3 stages, which were the stage of recognition of sex difference and obstacle in sexual life, the stage of observation of partner's attitude and the stage of husband's lead in sexual life.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sexuality was an important aspect for the elderly although their sexual interests and activities declined along with aging. In addition, the husband's sexual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sexual difference we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he elderly's sexual lif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sexuality as a normal aspect of life for the elderly when nurses plan for their care.

Key words : Aged, Sexuality, Rural popul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Han, Young Ran : corresponding author)